

“삼성 새만금투자 무산 정당 공동 대응을”

국민의당 전북도당
더민주·새누리에 제안

전북도와 협약 체결부터
제기된 논란 조사 나서기로

도내 정치권이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에 반발하며 서서히 결집하는 분위기다.

평소 정당한 대립각을 세우며 경쟁을 하던 것과는 달리 삼성의 새만금 투자 개발이 '도민 사기극'이었다고 우려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 규탄 및 정당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지난 2011년 4월 전북 전체가 삼성 새만금 투자 MOU로 축제 분위기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기업의 윤리나 책임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야말로 초라한 전복이 된 느낌을 지울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도와 정부는 무엇을 받고 삼성과 MOU를 체결했는지, 혹은 전북도와 정부가 당시 LH 경남 이전으로 인한 도민 달래기 용으로 삼성을 끌어들이던 것인지 의문만 커질 뿐이다"면서 "도민 여론을 이런 폼수와 거짓으로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큰 문제라는 것이 국민의당 전북도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삼성 새만금 투자 철회에 집중할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 불과 5년만에 경제 환경 변화를 운운하며 도민은 물론이고 국민에게 약속한 투



6차산업 제품 품평회

2일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6차 산업제품 판매 및 제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송하진 도지사 및 55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차산업 제품 품평회'가 열렸다.

자 약속을 백지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새만금 투자 철회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한 약속은 도민과 국민의 약속이며 이에따른 투자 이행 촉구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에 따른 책임소재와 MOU체결 당시부터 제기된 논란 조사 ▲투자 공식 철회에 따른 대가 등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새

누리당에도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차원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협치의 끈을 먼저 놓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새만금에 대한 도민의 기대를 고려할 때 각 정당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투자 무산시에는 공동 대응해 기업의 비윤리와 비생산성을 철저히 규탄하고 적절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정치권은 이번처럼 도당이 지

정 공동 대응을 제안하고 나서기로 한 것을 두고 삼성이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했다.

정가 한 관계자는 "삼성측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거대한 불매운동과 삼성 행태를 비판하는 시민행동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삼성으로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명 기자】
*6월 6일 공휴일인 관계로 6월 6일까지 신문 쉽니다.

여름철 녹조 대응책 마련

정부, 폐수처리시설 오염물질 처리기준 강화

지자체와 함께 가축 분뇨 등 불법투기 집중 단속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녹조가 어느 해보다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정부가 '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녹조 발생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녹조 발생 이후 주민 건강 보호 조치를 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 대책'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4대강(낙동강·영산강·금강·한강) 주요 구간 수온이 20℃ 이상으로 상승하는 이번 달부터 녹조를 유발하는 남조류가 다량 번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강 수계 17개소 및 낙동강 수계 27개소 등을 대상으로 녹조 발생 주요 인자인 총인(T-P)을 줄이기 위해 하·폐수 처리시설의 오염물질 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집중 점검해 수질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축 분뇨, 액체비료 등의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농식품부는 협업을 통해 댐·보·저수지 등에 이미 확보된 수량(水量)을 갈수기(澇水期)에 집중 방류하는 '연계 운

영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낙동강 일부 구간과 금강에 서민 시행했던 것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녹조 발생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녹조 발생 이후 주민들의 '먹는 물' 걱정을 덜기 위해 취수구 주변에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고, 독소·냄새물질도 신속하게 제거키로 했다. 또한, 조류경보제를 운영해 경보단계별(관심-경계-대발생) 유관기관 조치 사항과 어패류 섭취 자제 등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수원 구간에만 전파됐던 조류경보는 올해부터 낚시, 수영 등 친수활동 구간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녹조의 발생 정도와 확산 경로 등을 분석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신속한 상황 공유와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녹조 대응 TF(태스크포스)도 운영키로 했다.

황 총리는 "녹조는 자연현상으로서 완전한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녹조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용주 기자

원광대 4개 특성화사업단 계속 지원받는다

중간평가 상위 70% 포함

2014년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I)에 선정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특성화사업단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안심안전 농·식품산업 인력양성 특성화사업단, 예코 그린 건설기술 창의전문 인재양성 특성화사업단, 천연물 CSI 인재양성 특성화사업단, 주얼리 크리에이터 특성화사업단이 상위 70%의 우수 평가를 받아 계속 지원 받게 됐다.

4개 사업단의 연간 사업비는 총 35억 원으로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에 참여하는 안심안전 농·식품산업 인력양성 특성

화사업단을 제외한 3개 사업단은 특성화사업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원광대는 추가로 신규사업단을 꾸려 7~8월에 실시하는 신규·재선정 평가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CK 사업은 지역사회 수요를 기반으로 대학의 강점 분야를 특성화해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학부지원 사업이다.

원광대 특성화사업단은 2014년 7월 선정이후 연 평균 160개의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학의 체질개선과 사업단의 특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익산=정영원 기자

▶ 매일 INDEX

2면 도 지방자치단체 여성참여율 '저조'

도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면서 양성평등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도와 여가부에 따르면 2015년 전북 지자체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지난해 연말기준 24.2%로 조사됐다.

4면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 하루 20명꼴

올해 5월까지 도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3000명 이상이며 이 중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만 1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3134명으로 기록됐다.

5면 전북 화폐수급업무 재개 총력

전주시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전주시는 6월 1일자로 한은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요청하는 김승수 시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16면 남원 광한루원이 완성도 UP

올해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네번째 시리즈로 새롭게 돌아온 '창극 광한루연가'가 더욱 완성도를 높여 순항하고 있다. 춘향전의 다양한 해석을 시도했던 남원시립극악단이 2016년 새로운 광한루연가 시리즈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무주군의회 mujucc.gaontec.co.kr

군민 郡民 중심 中心의 민주의회 民主議會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통문화의 장

안릿골 Banditgol Traditional Crafts Culture Village

전통공예 문화촌